

# 기초과학부터 전략산업 육성까지 획기적 기여

전남 초강력 레이저 시설 왜 필요한가  
레이저 산업 규모 폭발적 증가  
세계 각국 시장 선점 치열한 경쟁  
전남도 유치엔 클러스터 조성  
레이저 전문가 “전남 준비 완벽”

올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공모를 앞두고 전남도가 지금까지 전문가들과 논의 과정에서 부상한 과제들을 세심하게 점검하고 있다. 전남도내에 이 시설이 구축돼야 하는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기부의 국가 과학기술 분야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키고, 광주·전북의 협력을 얻어내 호남권 유치라는 명분을 얻어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한다. 중앙부처, 지역 정치권, 전문가, 지역민 등과의 접촉면도 늘려가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붐을 조성해 공모 과정에서 압도적인 격차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왜 필요한가=레이저는 1960년 미국의 메이먼(T. Maiman)에 의해 최초로 개발된 이래로 지난 6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전 세계적으로 페타와트(PW) 이상의 초고출력 레이저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기초 과학 연구 및 응용연구 및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특히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기초연구 측면에서 초고속, 초고온, 초고압 등 극한 과학 연구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우주에만 존재하는 고에너지 천체 현상을 실험실 내에 구현하는 등 지금까지 불가능했던 자연 현상 탐구가 가능해진다.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은 원천 기술 확보, 전략산업 육성 등에도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 약 2000여개의 레이저 관련 기업들이 있다. 레이저 관련 국내 기술력은 주요국 대비 50% 이하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LD(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칩이나 모듈과 같은 핵심부품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투자와 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의 조성은 필요하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세계 각국 레이저 선점 위해 치열한 경쟁=레이저 관련 산업의 규모와 경제적 가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내 레이저 시장은 2016년 2조 5000억원에서 2021년 5조원으로 매년 15%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시장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3조8000억원이었던 것이 오는 2025년 20조 8000억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이러한 관련 산업의 성장과 국방, 의료 등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미국은 이미 4조5000억원 규모 레이저 연구시설인 ‘NIP’를 구축했으며, 프랑스 역시 1조7000억원 규모 연구시설인 ‘LMJ’를 갖추고 있다. 러시아도 레이저 연구시설인 ‘XCELS’, 유럽연합은 레이저 연구시설 ‘ELI’를 각각 조성해 가동 중이다.

◇전남 기존 산업과 시너지 효과, 관련 클러스터 조성=전남도는 올 하반기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유치한다면 곧바로 내년에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 기획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 광산업단지 내 레이저 관련 기업, 한국광기술원과 한국광산업진흥회, 전남테크노파크 레이저융합산업센터 등을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을 중심으로 묶어내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열악한 호남권 산업 기반의 판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핵심시설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 시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반도체 특화단지’ 유지는 물론 우주항공, 국방, 에너지, 의료, 바이오 등 관련 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도 가능해진다.

◇남창희 초강력레이저연구단지장 “전남 최적지”=국내 최고 권위의 레이저 전문가인 남창희(66) IBS 초강력레이저과학연구단장은 GIST에서 10년째 초강력 레이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플라즈마 물리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9년 KAIST에서 자체 개발한 고출력 펄스 레이저를 이용해 초고속 광학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업적을 남겨 이땅의 과학기술자상 및 학술원상 등을 수상했다. 또 2012년 기초과학연구원의 초강력 레이저 과학 연구단장을



민주 최고위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최고위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찬대, 고민정, 장경태, 송갑석, 서영교, 정청래, 고영인 후보. 운영 찬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비대면 참석했다. /연합뉴스

## 이재명 “국회의원 비례 의석 취약 지역 의무 배정”

### 고향 안동 찾아 토크 콘서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지난 30일 경북 안동을 찾아 당원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안동수산물도매시장서 연 토크 콘서트에서 “오랜 시간 지역에서 정말 희망도 없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수년간, 수십 년간 고생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 대표가 되면” 국회의원 비례 의석을 이 취약 지역에서 오래 고생하는 분들에게 의무 배정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각종 선거의 후보자 공천에 대한 공정성도 다짐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

한도 공정하게 행사해야 하는 것처럼 당원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도 당연히 공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면서 “공천 과정에서 전형해서 나쁜 결과를 낸 경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출마의 이유도 밝혔다. 이 후보는 “제가 당의 중심에 있지 않고 당의 바깥쪽에 있다 보니 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잘 몰랐다”면서 “이번에 여의도 언저리를 가보니 민심과 당심, 여의도의 마음이 너무 달랐다. 이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은 국민 속에 있어야 하고 당은 당원들의 의지가 관철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28%로 ‘뚝’

### 갤럽 조사 부정평가 62%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 밑으로 떨어졌다.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29일 나왔다. 5월10일 취임한 지 두 달여 만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2%로 각각 집계됐다.

윤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6월 둘째주 53%에서 한 달 넘게 하락해왔다. 지난주 32%에서 하락

세가 멈춘 듯 했지만, 이번주 조사에서는 추가로 4%포인트가 더 떨어지면서 지난 5월 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30%선이 무너진 것이다.

6월 둘째주 이후 부정 평가는 30%대 초반에서 이번주 62%까지 늘었다. 지난주(60%)와 비교하면 부정 평가가 2%포인트 올랐다.

여권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과 보수층에서도 윤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한 긍·부정을 격차가 한 자릿수에 그친다고 갤럽은 분석했다.

인천·경기에서만 전주 대비 3%포인트 오른 30%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 윤 대통령 “취학연령 1년 앞당기는 방안 신속 강구하라”

### 교육부 업무보고서 지시

### 학생 급감 교육시스템 재점검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뤄진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관련기사 6면>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학 계층이 공정한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소외계층의 학습결손 회복과 각각의 특성에 따른 교육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과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보장하는 등 국민의 선택권을 폭넓게 확대해야 한다”며 “또 학생수 급감 추세를 감안해 지방교육 재정을 포함한 교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학제개편 방안의 취지에 대해 “사회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교육은 보편적인 권리이고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앞당겨서 공교육 체제 내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조기 교육 이야기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리는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 보장 지시

가 과학고·자사고·외고·특목고 확대 취지가 맞느냐는 물음에 “특목고와 자사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선호와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다고 박 부총리는 전했다.

특히, 박 부총리는 정시·수시 등 대입전형 관련 논의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공급자 중심으로 대입체제가 개편돼 왔다”며 70여년간 이어진 교육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대국민 설문조사 및 학생 대상 수요조사를 할 계획임을 알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리는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승수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레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현제시공모습

스틸방수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